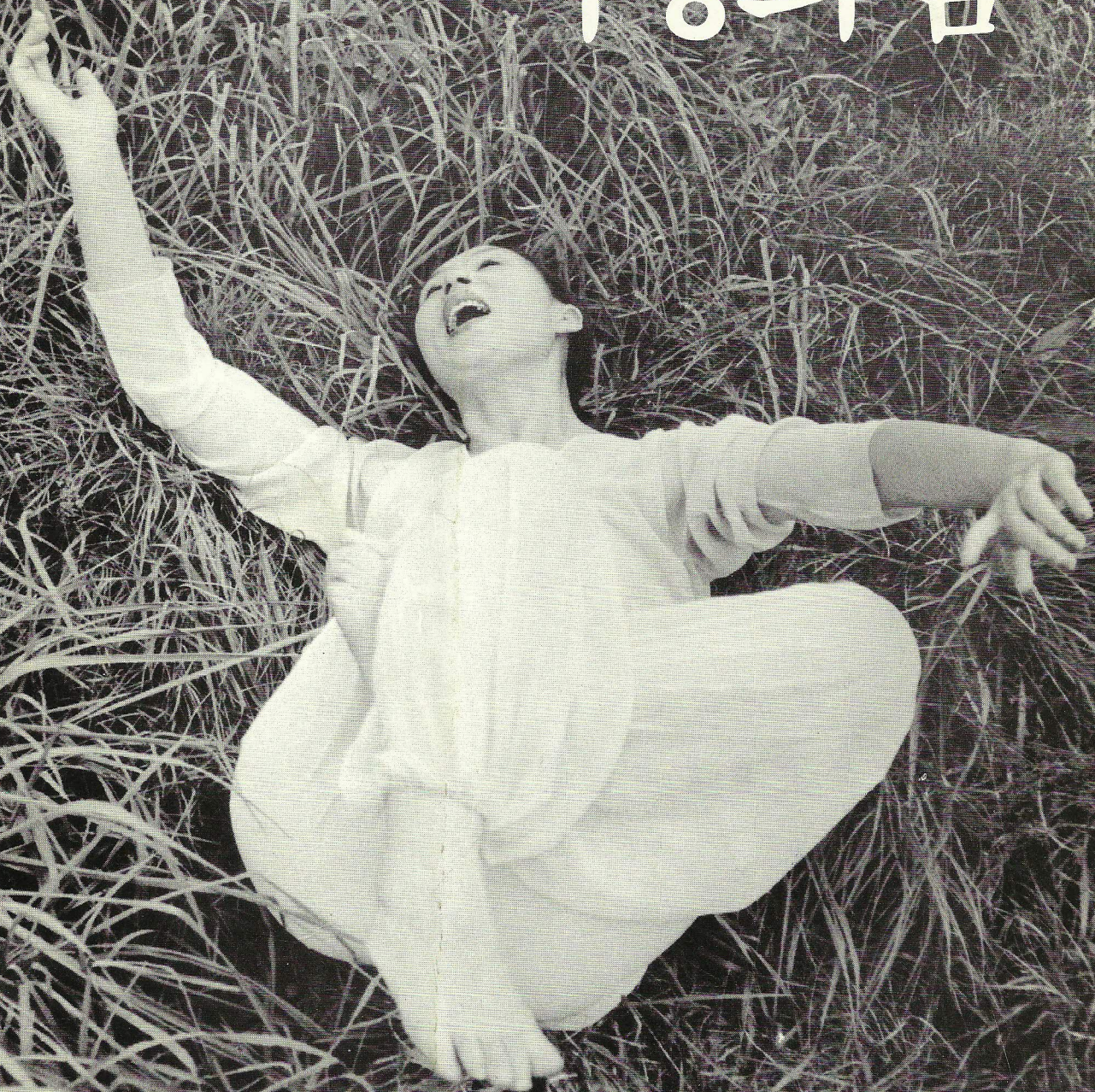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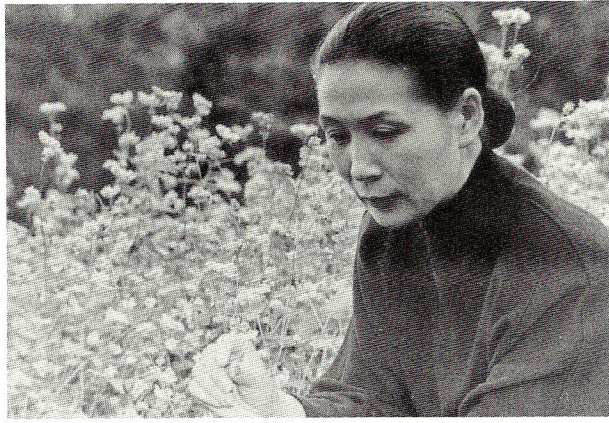


# 이영희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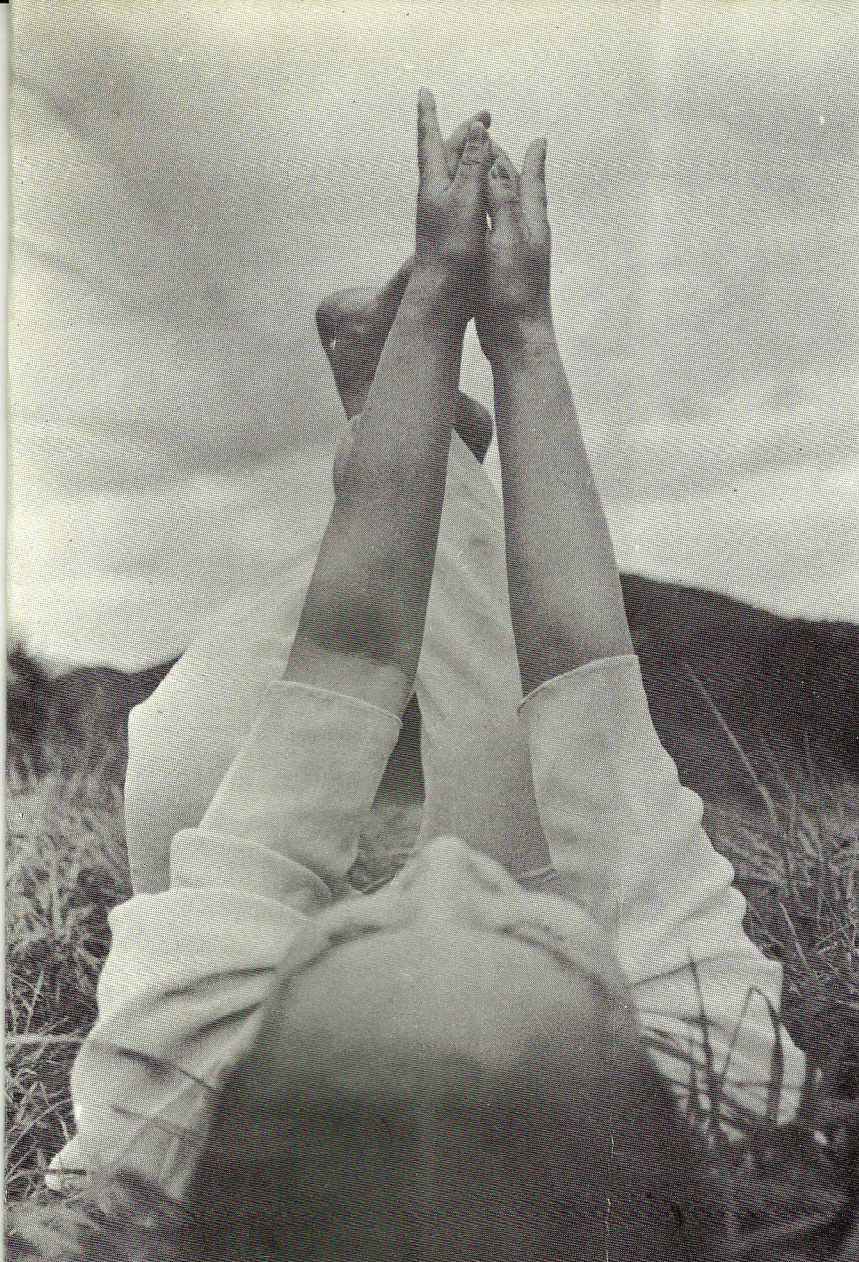
1987. 11. 18 PM 5:30 7:30  
부산산업대학교 콘서트홀  
후원 : KBS 부산방송본부



땅에 발을 딛고 저 푸르고 높은  
 하늘을 우러러 본다.  
 앞산에 서있는 심원한 소나무의  
 그 푸르른 理를 마음에 담고 싶으매  
 오늘 두 팔을 벌려 조용히 눈을 감으면  
 그 생명력의 가만한 떨림은  
 나와 일체가 되어  
 환희의 세계가 산처럼 누워있다.

87년 11월  
 이 영 희

- 
- 부산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 체육무용과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무용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학과 졸업
  - 신인예술인상 금상(문화공보부)
  - 제19회 멕시코올림픽 한국민속무용단 참가
  - 일본 시모노세키 세계민속무용제 참가
  - 미국 한스빌시 초청 시티홀 공연참가
  -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초청 뉴욕공연 특별출연
  - 일본 산케이신문사 특별 초청공연
  - 제6회 대한민국무용제 전야제 초청공연
  - 국립극장 상설무대 초청공연
  - 호암아트홀 개관 초청공연(한국무용대공연)
  - 서울86아시안게임 폐회식「기원무」안무
  - 중앙일보사 주최 호암아트홀 초청공연
  - 인천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1981~1987. 2)
  - 현 부산산업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 주요 작품 : 굴레야 굴레야 · 인천말뚝이 · 갯마을 마당풀이 · 차별이 없음을 보다 · 합의 에너지



○1부  
승무  
살풀이 춤

○2부  
실체(实体)를 찾아서

○안무·출연 이영희  
○무대미술 이호종  
○의상 이수동  
○조명 김장태  
○음악 XOCHIMOKI  
(new music ancient sources)

## 실체(实体)를 찾아서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의 현상 그 자체가 그대로 존재의 실체라 생각하는 데서 인간은 집착을 갖게 되고 마침내는 고통 속으로 빠져버린다.

현상을 의심하여 깊숙히 들여다보면 변화하는 모든 현상의 내면에는 현상을 지배하는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理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현현된 사물의 현상과 理의 실체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동일 실체에 대한 양면성일 뿐이다. 그래서 事와 理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고 서로 관련되어 있어 연결·융통해서 결림이 없게 됨을 자각할 때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